즉시 배포용: 2024년 9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기후 주간을 맞이하여 환경 교육 센터 및 소외 지역사회 지원에 700만 달러 지원 발표

환경 오염 피해를 받은 뉴욕 주민을 지원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환경 교육 센터 건설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보조금

신청 기한은 2025년 1월 22일

기후 주간(Climate Week)을 맞이하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및 원주민 단체가 지역사회 환경 교육 센터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노베이션해 환경 인식을 제고하는 강좌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반드시 소외 지역사회 또는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위치해야 하며 이곳은 환경에 대한 교육, 발견, 탐색 등을 장려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소외 지역사회가 받는 불공정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주의 혁신적 노력에는 차세대 환경 운동가를 양성해 우리의 거주지와 일터, 여가 공간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마련될 환경 교육 센터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며,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역의 문화 보호 지구를 지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뉴욕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또는 기후법(Climate Act)은 기후 변화로 지역사회가 받는 피해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후 정의 실무단(Climate Justice Working Group)에 최근 최전선과 그 밖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가 깨끗한 에너지원, 오염 감소 및 깨끗한 공기, 그리고 경제적 기회로의 주의 역사적인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된 지역사회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확정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뉴욕 기후법 웹사이트를 방문해 인터랙티브 지도를 비롯해 주 전역의 소외 지역사회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규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250,000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도시 생태, 환경 정의 문제, 친환경 기술, 도시 환경 지속가능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하는 교육 센터에 지원됩니다. 건물 또는 토지 매입, 건축 또는

리노베이션, 시설 확장 또는 재개발, 가구와 장비 구매, 기술 장비 구입 등 등 자본 비용을 제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임시 커미셔너인 Sean Ma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환경 교육 강화가 주 전역의 소외 지역사회와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센터는 개인과 가족, 단체가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행사를 열거나 문화 보존 및 환경 봉사에 대해 알 수 있고, 지역사회 탄력성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가능한 활동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공기 오염 관련 교육 및 실내 공기 오염 노출을 줄이는 모델링 방법.
- 환경 정의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
- 문화 보존 및 환경 봉사.
- 친환경 일자리 훈련 및 교육.
-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지키는 프로그램, 정보, 전시 개최.
- LEE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친환경 인프라, 농업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 혁신적 건축 또는 공학 기술을 도입한 악천후 쉼터.
- 분수령 문제, 복합 하수 배수, 차량 배출가스, 에너지 발전, 고체 폐기물 전환 활동 및/또는 기타 환경 문제에 집중한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 단체, 지역사회 활동, 워크샵 등 모임 장소.
- 생태학, 환경적 위험/문제/이슈, 친환경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the Arts and Mathematics, STEAM)에 대한 K-12 교육 프로그램.
- 생태학, 친환경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 등 칼리지 선택과목 운영.
- 지역사회 정원 또는 농장 등 야외 공간 마련.

신청 기한은 2025년 1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제안 요청(request for applications, RFA)은 온라인 Statewide Financial System of New York (ny.gov) (SFS)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지역사회 기반 단체는 신청 전 반드시 SFS에 등록하여 사전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를 목표로 최소 35%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and-Invest program (New York Cap-and-Invest, NYCI)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의 70%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등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전력 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1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28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400곳 이상,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50곳 이상,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500곳 이상,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